



이재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대학 졸업 후 삶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다. 40여 성상을 애정과 정열을 담아 연구에만 정진해 온 李載球(70) 충북대 명예교수. 정년퇴임이란 영광의 문을 나섰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재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꿈 많던 학창시절 뜻밖의 건강악화는 전화 위복일 뿐이었다. 냉수마찰을 시작으로 은근파 끈기가 투합되면서 李교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강해졌다. 선진학문 전달을 위한 그의 의지 앞에 언어는 물론 그 어떤 환경도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스스로의 삶을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는 李교수의 좌우명은 의외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란다. 대학원 강의와 연구논문 발표로 동분서주하는 李교수를 충북대 교정에서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고교시절 일시적 건강이상을 경험한 바 있어 누구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해 왔고 덕분에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퇴임하시는 날까지 연구하시고 지금도 연구자의 길을 걸으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 근황을 전해주시지요?

재직시 미처 끝내지 못했던 연구들을 갈무리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교수에게는 5년 동안 한 개 강좌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측의 배려로 대학원

“농약에 대한 일반대중의 올바른 상식 위해 꾸준한 홍보 필요”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재임시 외국 연수를 통하여 선진학문을 도입함으로써 학문 영역을 넓혔다고 들었습니다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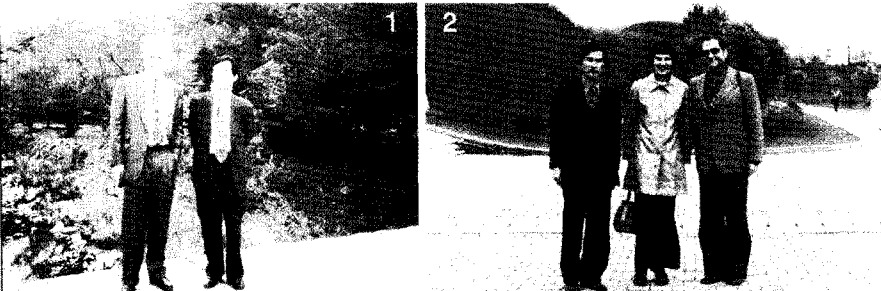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70년대 지방대학의 연구 여건은 열악하여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창시절부터 영어, 독일어, 불어 등 외국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덕분에 나라를 가리지 않고 해외

여러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농약의 환경 중 행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신 업적이 크시다고 알려졌는데요?

1983년도에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ROK/5/021/a)을 수행하면서 IAEA로부터 \$58,400 상당의 기자재 무상원조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내에 방사성 동위원소 실험실을 완비하고 독일 원자력 연구소(KFA)의 방사선 농학 연구소(IRA)에서 F. Fuhr 박사(연구소장)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연구했던 농약은 14C 로 표지된 제초제 벤타존(Bentazon)이었습니다.

Fuhr 박사는 독일 Bonn 대학의 교수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농약을 사용한

Lysimeter 연구를 독일에서 처음 시도한 분입니다. 그분과 인연을 맺은 이래로 십여년간 14C로 표지된 농약의 환경 중 행적을 구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14C로 표지된 농약은 Bentazon, Carbofuran, Phosphamidon, TCAB, Acrinathrin, Imazapyr, Quinclorac, Cinosulfuron, Paraquat, Flutolanil, Mefenacet, Imidacloprid, Iprovalicarb, Bensulfuron-



1. 속리산에서 Dr. Fuhr 박사(독일 원자력연구소)와 함께 2. 경주에서 Dr. Bollag(PSU) 부부와 함께

연수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인연을 맺었던 외국 학자들로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Matthew J. Zabik 교수, 프랑스 INRA(Dijon)의 J-C. Fournier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Jean-Marc Bollag 교수, 독일 원자력 연구소의 F. Fuhr 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Davis의 Bruce D. Hammock 교수 등이 공동연구자들로 오래 추억에 남는 분들입니다.

methyl, Azimsulfuron 등입니다.

재임중 명예로운 한림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을 때의 소감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창설당시부터 현재까지 정회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지방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도전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09년 스승의날 행사때 제자들과 함께

4. 백두산 천지에서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심의 위원들이 농약회사의 생산 공장이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실정을 파악했던 추억이 오래 남습니다.

현재 농약산업은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등 여러 반농약 농법 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농약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우선 일반대중의 농약에 대한 인식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에 대한 일반대중의 올바른 상식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독성인 농약을 맹독성 농약이라고 버젓이 보도하는 사례들을 볼 때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너무

나 딱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작지만 중요한 것들이 바로 돼야 올바른 인식이 정립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고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소비자는 관련정부기관의 연구보고에 신뢰를 가지고 불필요한 기우를 않도록 꾸준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학들을 위해 특별히 당부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집착이라 할 만큼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왔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여건이 많이 향상된 만큼 항상 노력하면서 자기 발전에 힘쓰길 바랍니다. Y